19 부산 양궁 협회

우리나라 양궁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주둔했던 주한미군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국 군인 엘로트(Mlnan E. Elotte) 중령이 장충단공원 석호정에서 양궁시범을 보인 후 양궁활을 기증했으며, 대한궁도협회에서 규약을 개정하고 양궁종목을 정식 장려했다. 이후 한국 양궁은 1979년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김진호 선수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양궁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부산양궁협회는 1976년 동아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제홍 초대회장이 부산시양궁협회를 창설한 이래 1976년 부산시체육회 가맹단체로 정식 등록했다. 88올림픽대회에서 부산 출신의 이한섭(당시 국군체육부대)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부산 양궁의 위상을 드높였다.

1989년 제3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동의대 재학생이었던 이흥섭 선수가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이후 부산양궁협회는 윤일석, 김성훈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수많은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부산양궁협회는 2011년 7월 우성정밀 이승락 회장이 취임, 부산 양궁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부산시체육회 남자양궁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써 부산 양궁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초 · 중 합동훈련을 통해 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양궁협회는 스포츠과학을 바탕으로 우수선수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6년 열릴 리우데자네이로올림픽대회에서 88올림픽대회 금메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지도자와 선수들 모두 한 몸이 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양궁협회에는 초 · 중 · 고 · 대 · 일반부를 포함해 총 13개 팀 90여 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직 회장

이승락
(주)우성정밀 대표이사

- 2009~20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회장
- 2011~2012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회 이사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88.09	88올림픽대회 남자단체 금메달 획득(이한섭)
1989.07	제35회 스위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단체 동메달 획득(이흥섭)
1990.04	제1회 부산시장기 양궁대회 개최
1990.07	제19회 부산종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1994.05	제1회 부산시양궁협회장기대회 개최
2000.12	중국 상하이팀 친선교류전
2005.02	FITA 세계양궁 지도자 강습회 개최
2012.01	부산시 초 · 중학교 합동훈련 실시
2012.08	일본 나가사키현 친선교류전

역대 회장

제1대	**김계홍**	1976.01~1981.12
제2대	**정치영**	1982.01~1988.12
제3대	**강향희**	1989.01~1992.12
제4대	**하성희**	1995.01~1996.12
제5대	**장현자**	1997.01~1997.08
제6대	**이광태**	1998.06~2004.02
제7대	**장제원**	2004.02~2008.02
제8대	**문태경**	2009.03~2011.06
제9대	**이승락**	2011.07~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이승락**	(주)우성정밀 대표이사
부회장	**이세일**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손승우	부산체육고등학교 교감
	김주혁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병주	동서대학교 교수
	이미향	대평초등학교 양궁지도자
전무이사	**김동국**	체육회 양궁감독
경기이사/심판이사	**김성규**	동서대학교 양궁감독
기록이사	**최명화**	모덕초등학교 양궁지도자
기획이사	**윤 강**	부산체육고등학교 교사
감사	**강병영**	세무사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7 / 75	5 / 20	5 / 16	3 / 18	1 / 4	3 / 17
2008	16 / 75	5 / 24	5 / 18	3 / 17	1 / 6	2 / 8
2009	18 / 75	8 / 29	5 / 16	3 / 29	1 / 7	1 / 4
2010	18 / 82	8 / 28	4 / 17	3 / 14	1 / 4	2 / 19
2011	20 / 82	7 / 25	6 / 14	3 / 17	2 / 6	2 / 20
2012	19 / 72	6 / 15	6 / 19	3 / 15	2 / 5	2 / 18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14(510)	1 / 1 / 0	10(215)	9(295)	14(0)
2008	11(769)	1 / 3 / 0	5(585)	11(184)	15(0)
2009	12(642)	2 / 2 / 1	11(88)	8(475)	11(81)
2010	7(1,130)	2 / 6 / 1	8(332)	2(690)	14(109)
2011	11(622)	0 / 4 / 3	11(220)	8(336)	13(66)
2012	15(561)	1 / 2 / 2	11(34)	7(233)	10(294)

20 부산 사격 연맹

사격은 오랜 역사를 지닌 경기종목으로 그 시초는 10세기 말경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활 대신 총을 사용해 수렵과 전쟁을 수행했고, 15~16세기 무렵 과학 발달과 더불어 총이 다량으로 보급되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사격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다.

1907년에는 국제사격연맹이 창설됐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1년 국제사격연맹(ISSF)으로 재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육군연성학교에서 장교 재교육과정에서 사격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식 사격 국가는 8 · 15 광복 이후 1955년 대한사격협회가 창설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960년 국제사격연맹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제대회 출전은 1956년 제16회 멜버른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효자종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사격연맹은 1963년 3월 17일 부산직할시사격연맹으로 발족했다. 이후 부산 범내골 출신의 이은철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 사격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 은메달,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금 · 은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2관왕을 차지한 KT 소속의 진종오 선수(2012년 선수등록지를 부산광역시로 옮김),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광역시청 소속의 김장미 선수가 부산 사격의 맹위를 떨쳤다.

1999년 4월 부산사격연맹은 제15대 김호익 회장을 맞아 학생 사격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2012년 3월까지 김호익 회장체제로 연맹운영의 기틀을 공고히 다져왔

현직 회장

김종백
(주)가보 회장

- 1978.02~1984.09 동아전기통신사 상무
- 1984.10~1990.09 동일전기공사 대표
- 1990.10~현재 (주)가보 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 7 · 8 · 9대 회장
- 전 법무부 부산동부지청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
- 부산대학교 AMP 총동문회 제27대 회장
-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현 부산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시민보호지원센터 이사장
- 전 부산해운대경찰서 선진질서위원장
- 전 부산지방고등법원 조정위원
- 현 (사)부산동부 푸른장산장학회 이사장
- 부산 상공회의소 제 18 · 19 · 20 · 21대 의원

역대 회장

제1대	**서정환**	
제2대	**정기달**	
제3대	**문형태**	
제4대	**정순민**	
제5대	**현치호**	1976.12~1981.01
제6대	**조동환**	1981.02~1982.06
제7대	**한윤규**	1982.07~1984.02
제8대	**강향희**	1984.07~1988.12
제9대	**박준호**	1989.08~1992.12
제10대	**현치호**	1993.01~1994.12
제11대	**김태봉**	1995.07~1995.12
제12대	**김훈일**	1996.04~1996.08
제13대	**김남종**	1997.03~1997.12
제14대	**이방호**	1998.04~1998.12
제15대	**김호익**	1999.04~2012.03
제16대	**김종백**	2013.02~현재